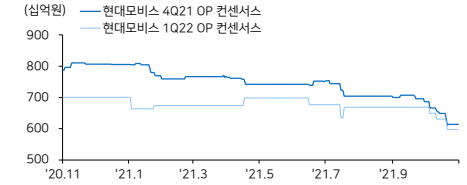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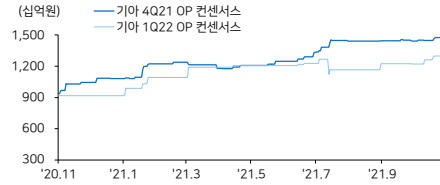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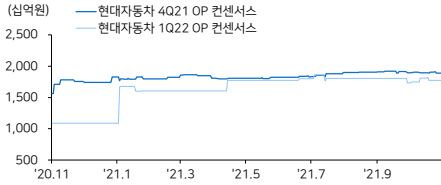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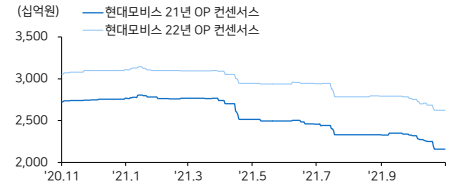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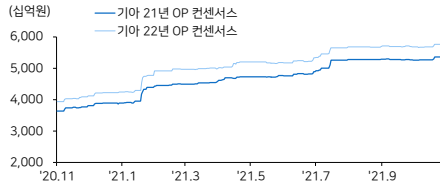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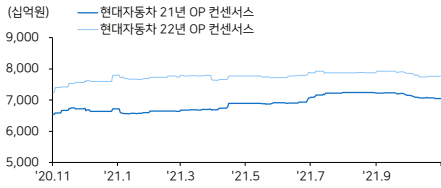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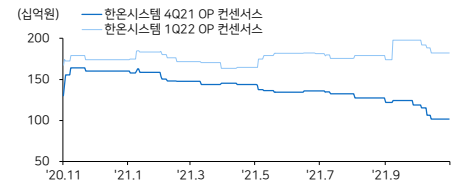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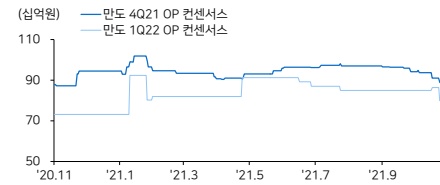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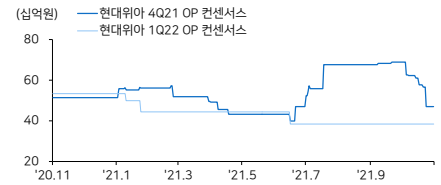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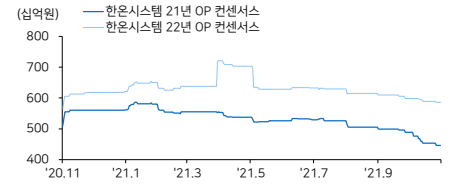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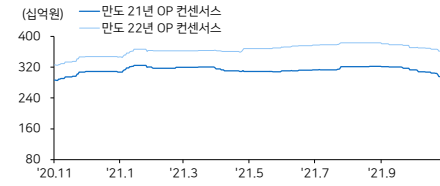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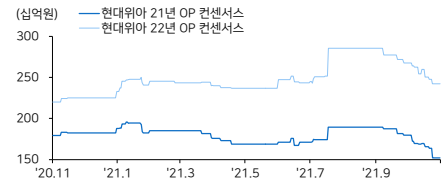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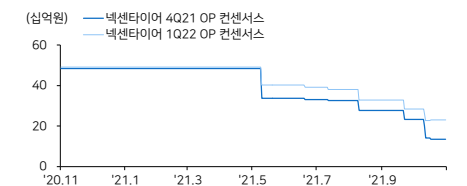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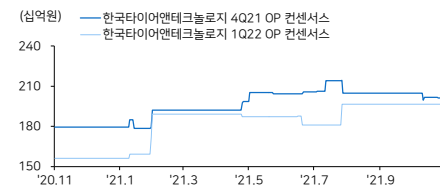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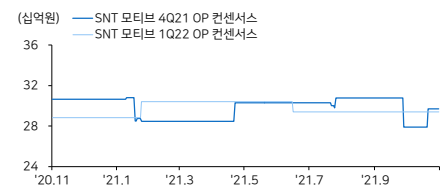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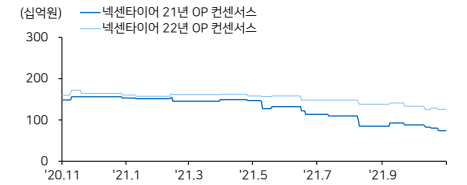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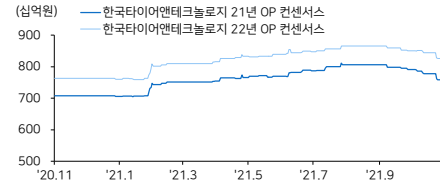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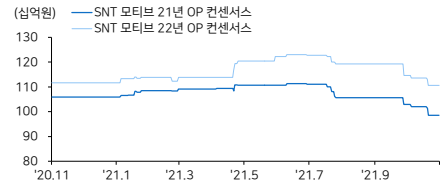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판매 5위...한국은 내수 7위로 상승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이 아이오닉5·EUV를 앞세워 yoy +67% 증가한 15만 9,558대를 판매하여 글로벌 전기차 판매 5위를 기록함. 한국은 3·4분기까지 전기차 7만1000대를 판매하여 연간 내수 판매량 세계 7위를 기록함.
<https://bit.ly/3Fh5VZG>

한뎀 틈만 있어도 통과한다...현대모비스, 차세대 주차제어시스템 개발 (파이낸셜뉴스)

현대모비스는 협로주행, 후방자율주행, 원격 주차주차 기능 등을 통합한 도심형 운전자편의시스템(ADAS)인 차세대 주차 제어시스템(MPS)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선제적 제안할 방침.
<https://bit.ly/3DgnZCI>

인도·인니·태국 보급률 1% 불과...신용시장으로 변신 '전기차 대전' (한국경제)

각국 정부가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고 있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이 전기차 업체들의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함. 인도는 전기차 점유율은 '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며, 동남아 각국도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함.
<https://bit.ly/3CgXFQQ>

반도체 수급 풀리나, 토요타 생산 정상화...12월 역대 최고 수준 (Auto Daily)

토요타자동차가 12월 생산계획이 7개월 만에 일본 국내 14개 공장 28개 라인이 모두 가동되고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HozFFA>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에 현대차, 카카오 등 국내 21개사 편입 (전자신문)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현대차, 카카오 등 국내 21개사가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DJSI 월드 지수에는 세계 2544개 평가대상 기업 중 12.7%인 322개 기업이, 국내 기업은 21개 기업이 편입됨.
<https://bit.ly/3FayHul>

전기차 잘나가지만... 자동차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서울신문)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상장을 비롯해 최근 전기차 전환의 기대감을 높이는 이벤트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부담을 호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중.
<https://bit.ly/3qAYwAc>

미,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걸리나...'여당내 야망' 땀 뻘 났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조 맨틴 상원 의원은 전기차 세제지원 방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 공화당이 예산안에 전원 반대하는 상황에서 맨틴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안은 부결되고 통과되지 못할.
<https://bit.ly/3Kd2YnN>

美 루시드 840km, 中 광저우 1000km... 전기차 꿈의 주행거리 나온다 (조선비즈)

중국 광저우자동차(GAC)가 주행거리 1000km 넘는 전기 SUV '아이온(AION) LX 플러스'를 이달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할지 주목받음. WLTP 또는 NEDC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
<https://bit.ly/3cbM2a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